

종교교육학연구 제53권. pp.77-100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7. 2. 28.

무의식의 담론과 마음교육

- 대행선사(大行禪師)와 프로이트(S. Freud)를 중심으로 -

김 영 래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요 약〉

본 논문은 무의식의 담론에 근거한 마음교육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대행선사(大行禪師)와 프로이트의 마음관과 마음교육관을 비교분석하였다. 대행선사는 인간 본성(本性)의 회복 과정을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성의 깨달음이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합일되는 경험이라고 설파한다. 프로이트도 이와 유사하게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며, 무의식(또는 이드)의 영토를 현재의식(또는 자아)의 영토로 편입시켜가는 것이 정신분석의 목표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두 담론의 용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종교담론과 학술담론으로서의 내용적인 차이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담론은 마음의 심층구조에 대한 통찰에 있어서 구조적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통하여 마음의 온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마음교육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공통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본 논문은 무의식담론에 근거한 마음교육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종교담론으로서의 대행선사의 가르침과 학술담론으로서의 프로이트의 이론이 상호소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 이론적 타당성과 실천적 적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핵심주제어: 대행선사, 프로이트, 주인공관법, 정신분석, 현재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I. 들어가는 말

불교, 특히 동아시아 불교의 주류인 대승불교(大乘佛敎)는 마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으며, 마음의 근본인 불성(佛性), 또는 불성의 마음을 깨달아 자신의 존재가능성을 완전히 실현한 부처가 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 즉 중생(衆生)의 마음인 ‘자아의식’은 무수한 전생(前生)을 살아오면서 지은 업습(業習)의 소산으로서, 자신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불성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무명(無明)의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수행을 통하여 불성을 자각해야만 온전한 자기존재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불교적 마음관의 이중적(二重的) 구조를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자기존재를 의식하는 자아의식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자아의식의 근본바탕인 불성의 마음은 자아의식의 편에서 보면 미지의 상태, 즉 무의식(無意識)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교의 마음관은 프로이트나 융 등이 주장한 ‘의식’과 ‘무의식’의 이중적 구도를 쉽게 연상시킨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의 창건주인 대행선사(大行禪師: 1927-2012)는 불교가 현대인의 삶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가르침을 평이한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야 함은 물론, 현대과학이론 등의 학술담론들과도 회통(會通)시켜야 하며, 이를 통하여 불교가 종교의 범주를 넘어서서 인류의 정신적 삶과 문명의 진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 또한 수행방법도 현대사회에 적합하게 변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른바 주인공관법(主人空觀法)을 제창하였다. 대행선사는 주인공관법을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한 바 있으며, 깨달음이란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합해지는 체험이라고 설파하였다.

프로이트는 마르크스, 니체와 함께 20세기 이후의 인류사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상가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명성은 그가 무엇보다도 무의식이론의 실질적 창시자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는 또한 정신적 건강성과 온전성을 위해서는 무의식의 영역을 단계적으로 현재의식의 영역으로 편입해 들여야 하며, 이것이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과제라고 설파함으로써 대행선사의 입장에 근접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행선사와 프로이트를 연관적으로 연구하면서 무의식담론에 근거한 마음교육론의 가능성을 고찰해 보기위해 기획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대행선사의 마음관과 마음교육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Ⅱ), 프로이트의 마음이론과 이에 따른 마음교육론을 살펴본 다음(Ⅲ), 이를 바탕으로 대행선사와 프로이트의 마음이론과 마음교육론을 비교 논의하면서 무의식 담론에 근거한 마음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Ⅳ).

1) 이러한 목적에 따라 대행선사는 한마음선원에 한마음과학원(hanmaum science institute)을 부설하였다(<http://www.hansi.org>).

Ⅱ. 대행선사의 마음관과 마음교육관

1. 대행선사의 마음관과 마음교육의 원리

대행선사의 마음관은 선사의 불교관에 근거한다. 선사는 전통불교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자수자득(自修自得)한 경지에 따라 현대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로 설법을 행한, 근현대 불교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인 불교지도자였다. 그에 따르면 불교는 생명과 삶에 대한 가르침이다. 불(부처, 불성)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근본 에너지이며, 이 근원에서 삶이 전개되는 것이므로 삶 자체가 교(敎)라고 하였다. 불(佛)이 전개되어 나타나는 것이 삶이므로 삶 자체가 불의 가르침이라는 말이다.

불교(佛敎)라는 것은 바로 생명과 삶입니다. [...] 일체 생명의 근본을 ‘불(佛)’이라고 하고 ‘교(敎)’는 이 생활입니다. 생활이기 때문에 살면서 배우고 지혜로움을 느끼고, 잘못되고 잘되고를 알게 되고 이렇게 자꾸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敎)입니다(대행선사, 2001b: 232).

대행선사에 따르면 불(佛)은 일체 생명과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이고, 내 마음의 근본이다. 이처럼 불(佛)은 생명과 우주의 근원이고 근본적 에너지로 파악되며, 따라서 일체의 현상들도 불(佛)의 성품(性品), 즉 불성(佛性)이 나타나는 모습이니, 불성은 일체의 현상을 현상(現像)하도록 하는 존재 근거인 셈이다. 불성은 특히 동아시아불교의 전통 속에서 일심(一心)으로 파악되어왔는데 대행선사는 이를 일러 ‘한마음’이라고 한 것이다. 대행선사에 따르면 요컨대 한마음은 개별적인 마음(의식)들이 생겨나기 이전의 근원이며, 이러한 한마음의 바탕에서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마음은 개별자를 벗어나 우주 삼라만상을 포용하는 원리이며, 일체제불과 일체중생의 동일한 근원이다.

한마음의 한 점은 바로 우주의 근본이며, 태양의 근본이며, 바로 천지의 근본이니 내 한마음의 한 점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겁니다(대행선사, 1999a: 100).

한마음은 어떠한 개별적인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한데 합쳐진 것이 한마음입니다(대행선사, 1999b: 131).

일체제불과 모든 일체 중생이 다 한마음 속에 있다, [...]들이고 내는 모든 것이 전체 한마음에서 들이고 내진다(대행선사, 1999c: 119).

그런데 대행선사는 이러한 한마음이 바로 우리 각자 존재의 근본이면서 모든 행위와 작용의 주재자(主宰者), 즉 주인공이라고 설파한다. 한마음(불성)은 생명에너지이며, 이를 바탕으로 마음을 낼 수 있고, 마음을 내면 육신이 움직이는데, 이 세 가지 원리가 연결되어 돌아가는 것이 생명활동이다.²⁾ 이 모든 것이 한마음이 변화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모두가 한마음이다. 이러한 한마음이 우리 각자 존재의 주인공이니 우리의 존재 전체가 그대로 주인공이다. 그런데 대행선사는 전통적인 용어인 주인공(主人公) 대신에 主人空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한마음은 고정됨이 없고 찰나 찰나 변화하여 나타나므로 고정됨이 없어서 공(空)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主人空이 올바른 이름이라고 하였다.³⁾

그런데 한마음을 깨닫지 못한 자, 즉 중생(衆生)은 무수한 전생(前生)을 거쳐 살아오면서 지은 업식(業識)들로 현재의식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적 토대인 한마음을 망각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한마음은 잠재의식(또는 무의식)의 영역에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식은 한마음을 잠시도 떠나있지 않으며, 떠날 수도 없다. 왜 그런가? 무수한 전생을 살아온 결과들이 자동적으로 입력되고 출력되는 자리가 다른 아닌 한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행선사는 한마음을 자동 녹음기, 자동 컴퓨터에 비유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대로 네가 일거수일투족 생활하는 그 자체, 어떤 업보가 닥치든지 그 안에서 일어나든지 하여간에 모든 것은 고놈이 하는 거다, 그 자동 녹음기가 하는 거다, 자동 컴퓨터가 하는 거다 이겁니다(대행선사, 1999d: 215).

그렇다면 입력되고 출력되는바 자체도 한마음을 떠나 있지 않으므로 그 모두가 한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쓰지도 못하는 이유는 쉬지 않고 출력되는 업식을 자신의 마음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이러한 업식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겁니다. 벗어나려 벗어나지 수가 없어요. 입력이 된 대로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죠(대행선사, 1999a: 413).

업식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생성된 것이므로 업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현재의 삶이 과거 삶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업식의 지배를

2) “내 마음 깊은 속에 주인공이라는 것은 바로 불씨와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그 불씨로 인해서 마음을 내게 되죠. 마음을 내면 육신이 움직거리죠. 이 삼합이 같이 돌아가는 그 자체의 주인공을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대행선사, 2001a: 383)

3)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정 관념과 고정 행, 고정된 말이 없고 모든 것이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공(空)이라고 했던 겁니다”(대행선사, 1999a: 317). “왜 주인공이라고 그러느냐? 자기 몸뚱이가 공했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죠, 먹는 것도 그렇죠, 바로 가고 오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돌아가니 어떻게 주인공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주인공으로 인해서 그렇게 돌아가니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올바른 이름입니다”(대행선사, 2001a: 14).

받는 부자유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마음의 존재를 체험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쉬지 않고 출력되는 업식들을 본래 출력된 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 되돌려 놓는다 함은, 출력되는 업식들이 다만 이전 삶의 결과가 한마음에 입력되었던 것임을 알아서, 이들을 한마음에 돌이킴으로써 업식에 끌려가 행을 짓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출력된 업식에 끌려서 행을 짓지 않으면 또다시 새로운 업식이 생성되어 한마음에 입력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를 전통불교에서는 업장(業障)의 소멸(消滅)이라고 한 것이다. 업식의 입력이 일어나지 않거나 줄어들면 업식의 출력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이 돌려놓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문득 업식의 출력이 멈추는 체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업식이 나오는 바탕, 즉 한마음이 드러난다.⁴⁾ 이것이 대행선사가 말하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계합(契合), 즉 깨달음의 의미이다.⁵⁾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대행선사의 마음관의 기본구도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의식은 자아를 포함하고 있으며 잠재의식은 업식과 한마음을 포함한다.⁶⁾ 그런데 업식은 한마음에 입력되었다가 출력되는 것이며 출력되는 업식을 자아(현재의식)로 보는 것이니, 업식과 자아는 모두 한마음에서 나온 것이며 크게 보아 그대로가 다 한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마음교육의 방법론: 주인공관법(主人空觀法)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각자 존재의 뿌리이며, 우주 삼라만상과 연결되어 둘 아니게 작용하는 한마음을 발견하여 온전한 우주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한마음에 돌려놓아 소멸시킴으로써 한마음주인공이 발현(發現)되게 해야 하며, 이러한 마음교육의 방법을 대행선사는 ‘주인공관법’이라고 명명하였다. 관법(觀法)의 기초는 한마음주인공이 나의 뿌리요 주재자(主宰者)임을 믿고 ‘일체를 주인공에 놓는’ 수행이다. 현재에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과거에 입력이 된 대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대행선사는 컴퓨터의 입력-출력의 원리, 또는 녹음이 된 테이프

4)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데, 오신통이라는 그 작자가 바로 컴퓨터와 같다. [...] 그래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을 다시 거기다 입력을 하니깐 그릇이 비더라. 자꾸자꾸 그릇이 비고 또 비고 또 비고, 그러는 대로 자꾸 입력을 하니깐 완전히 해탈장게 그릇이 비더라. 그래서 아주 밝게 자기라는 놈이 등장을 하더라”(대행선사, 2001b: 772)

5) “또 한 사람한테 물기를 ‘먹는 사이 없이 먹을 줄 아느냐?’ 하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 스님은 아무 소리 없이 나가더니 수박 한 통을 톱 쪼개가지고는 터억 갖다 놓고는 삼배를 올리고 가만히 앉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 대뇌의 (머리의 왼쪽과 오른쪽을 차례로 쬼으시며) **잠재의식 쪽, 현재의식 쪽이 다 계합이 됐구나** 하더랍니다. [...] 이라고선 ‘너는 참 골수를 얻었구나!’ [...] 하시면서 [...] 꺾꺾 웃으시더라는 겁니다”(대행선사, 1999b: 228; 강조표시는 필자가 한 것임).

6) “바로 여러분의 그 깊은 잠재의식 속에 ‘참나’가 공(空) 안에 들었다”(대행선사, 1999a: 31). 여기에서 ‘참나’는 한마음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에 재녹음을 하면 이전 녹음이 지워지는 것을 예로 들면서, 출력이 되어 나오는 것을 되돌려서 주인공(主人公) 자리에 놓으면 그대로 지워져 버리므로 과거의 관습(慣習)으로부터 해방되어 언제나 편안하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설파한다. 선사는 특히 좋고 나쁜 것, 잘하고 잘 못한 것 등 양면(兩面)을 모두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요컨대 한마음주인공을 ‘믿고’ 일체를 한마음주인공에 ‘맡기며’ ‘지켜보라’는 말에 대행선사의 수행관의 요체가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다. 대행선사의 설법에 나타난 주인공관법의 요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수점토록 (현상적인) 나를 이끌고 온 참 자기인 주인공을 믿고, 일체가 그 자리에서 나온 것임을 믿고 닥치는 대로 그 자리에 놓고 지켜보는 것이 관(觀)이다.

둘째, 생활 속에서 닥치는 문제들을 “그 자리에서 밖에 해결할 수 없다”하고 맡기고 지켜보며, 또한 “참 나가 있다는 증명도 거기서 만이 해줄 수 있다”고 관(觀)한다. 문제해결에 있어서 대행선사는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한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너만이 잘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인공에 입력하고 지켜보며, 해결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하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고 입력하고 지켜보아야 한다.⁷⁾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잘 된 것은 감사하게 그 자리에 되 맡겨 놓고, 잘 안된 것은 “이것이 슬기롭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여기다” 하고 돌려서 놓는다(대행선사, 2001a: 218). 이것을 대행선사는 ‘굴림’이라고 한다.

셋째, 이렇게 일체를 그 자리에 놓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지켜보고 실험하며 체험해 나가면 인과응보가 무너지고 업습(業習)이 녹아져서 결국 참 나를 발견하게 된다.

넷째, 주인공관법수행의 과정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 먼저 참 나(주인공)를 발견하는 단계가 있으며, 그 다음에는 나와 남, 부처와 중생, 우주 삼라만상이 둘이 아님을 체득하는 단계이며, 끝으로 일체 생명과 둘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체득하는 단계다. 주인공에 일체를 놓아가는 수행을 통하여 참 나(주인공)를 발견하게 되면 나와 경계가 공(空)하여 둘 아니게 돌아감을 체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한마음과 합일되어 일체와 둘 아니게 나투는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이다.⁸⁾

이상에서 보드시피, 주인공관법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면서 동시에 ‘참 나(주

7) “내가 모를 때,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너만이 알아서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맡겨만 놓으면 아주 정식대로 다 해 나가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놔야 굴려 놓는 거죠. 구정물이 들어왔을 때 바로 그 구정물을 새 물로 바꿔 쓰는 거나 똑같죠”(대행선사, 2001a: 358). “‘주인공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증명을 해 줄 수 있다’. 또는 ‘네가 있다는 걸 너만이 증명해 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觀)입니다”(Ibid.: 73).

8) “첫째, 주인공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거다. 둘째, 증명을 해 줌으로써 둘이 아니게 돌아감을 알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들이고 내는 그 능한 도리를 알게 해 줄 것이다 이겁니다. 바로 그렇게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그것을 아는 까닭에, 세번째는 바로, 둘이 아니게 이 모든 일체 생명과 더불어 같이 나뉜다고 하는 도리가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죠”(대행선사, 2001a: 78).

인공)’를 발견해가는 근본 수행이기도 하다. 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도 주인공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관(觀)하고 체험하는 과정이므로 그대로가 참 나를 찾아가는 본분공부가 된다. 이처럼 주인공관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생활참선(生活參禪)이다.

Ⅲ.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1. 프로이트의 마음이론

주지하다시피, 프로이트에 있어서 마음의 개념은 ‘무의식(das Unbewusste)’과 ‘전의식(das Vorbewusste)’, ‘의식(das Bewusste)’ 그리고 ‘이드(Id)’와 ‘자아(Ego)’, ‘초자아(Super Ego)’의 개념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⁹⁾ ‘무의식’과 ‘전의식’, ‘의식’의 구분은 그의 심리학의 제 2기(지형학적 시기)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드’와 ‘자아’, ‘초자아’의 구분은 제 3기(구조론적 시기)에 나타난 것이다.

무의식이란 프로이트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동이나 의식활동의 숨은 동기로 간주되는 감추어진 정신활동이며,¹⁰⁾ 주로 소원충동(所願衝動: Wunschregung)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프로이트, 2009a: 189). 전의식(前意識)도 평소에는 의식되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서 의식에 떠오를 수 있는 정신활동의 영역이다. 반면에 무의식(無意識)은 절대로 의식될 수 없는데, 의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억압(Verdraengung)’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무의식의 내용은 본래 우리의 원초적 마음의 내용이었다고 본다.¹¹⁾ 이러한 원초적인 마음의 상태는 본래 무의식이 아니었다. 그런데 사회적-문화적 규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본능에 충실한 원초적인 마음은 억압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9) 프로이트의 심리학이론은 세단계의 형성과정을 거친다. 제 1기(1881-1897)는 마이네르트, 브로이어, 샤르코 등의 지도를 받으며 정신과의사이자 심리학연구가로 발전하던 시기이며, 제 2기(1897-1923)는 독자적인 심리학이론을 정립한 시기로서 지정학설 시기(topographical frame of reference)라고 불린다. 제 3기(1923-1939)는 지정학설로부터 구조론으로 넘어간 시기(structural theory of reference)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프로이트의 학문적 완숙기라고 볼 수 있는 제 3기의 입장에 따라 인성과 인성교육의 의미를 살펴본다(이무석, 2008: 16ff.).

10) “우리가 ‘무의식적’이라고 말할 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지만 그 작용, 효과로부터 그 존재를 추론해서 가정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과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 즉, 그것이 그 순간 활동하고 있음이 틀림없는데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의식적’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프로이트, 2004: 96-97).

11) “무의식 조직의 내용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 정신 속에 거주하는 원주민이라 할 수 있다”(프로이트, 2009a: 202).

설명해 보겠다: 원초적인 마음의 상태에 있는 유아(乳兒)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거울처럼 비추어보는 반성(reflection)의 기제(機制)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각하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부모와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視線)이 아이를 비추어주는 거울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한다. 이 시선 앞에서 아이는 이윽고 자신이 관찰, 감시, 검열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 시선에 의해 아이의 원초적 마음의 활동의 어떤 부분들, 특히 본능적 욕구들이¹²⁾ 퇴박당하고, 창피당하고,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 퇴박당한 원초적 마음의 활동들이 위축되면서 마음의 저변으로 밀려들어가는데, 이것이 최초의 억압 과정이다. 이러한 억압이 반복되면서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점차 뚜렷해진다.

그 다음 단계에 이르면 부모를 포함한 타인의 시선이 동일시(同一視) 등의 기제(機制)를 통해 아이에게 내면화되기 시작하며, 이를 통해 이 시선은 아이의 자아의식의 일부가 된다. 자아에 합류한 이 시선은 요컨대 부모와 타인들 그리고 사회로부터 받아들인 현실적, 문화적, 도덕적 의식이며, 이러한 의식은 이제 스스로 검열의 기능을 수행한다. 의식의 영역에 어떤 관념이 진입하려고 할 때, 이것이 검열당국에게 불쾌감을 초래하는 경우(즉, 현실적, 문화적,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이러한 관념은 억압된다.¹³⁾ 자아를 통한 억압은 타인의 시선에 의한 억압보다 훨씬 강력하고 철저하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은 회피할 수도 있지만, 자아는 내 안에 나를 보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회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아의 억압을 통해 의식의 저변으로 밀려들어난 내용들은 이제 더 이상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한다. 이렇게 자아에 의해 배제된 부분이야말로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무의식(無意識)이다. 인간은 현실적, 문화적, 도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 자아를 위협하는 모든 정신작용들을 지속적으로 억압하여 자아로부터 배제해 버린다. 자아는 이제 자기 밖으로 배제해버린 내용들을 더 이상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자아에 의해 배제된 관념들은 단지 자아의 의식역(意識閾) 밖으로 밀려날 뿐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아에 의해 배제되어 의식되지 못하는 정신영역을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아에 의해 배제되는 것은 주로 문명사회의 규범과 관행, 통념에 어긋나는 소원충동들이다. 그런데 소원충동이 지향하는 관념들(원하는 대상의 이미지, 상념 등)은 억압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배제되지만 소원충동 자체는 잘 배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억압을 받은 소원충동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감정과 충동이 되어 버리는 것이

12) 유아에게도 성욕이 있고, 성행동이 있다는 프로이트의 유아성욕설(幼兒性慾說)은 그 당시에도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3) “근본적으로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표상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힘을 지니게 되면 그 순간부터 갈등은 현실적인 것이 되고, 그와 같은 표상의 활동성은 곧바로 억압으로 이어지게 된다”(프로이트, 2009a: 145).

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정체불명의 정서적, 인지적, 충동적 관념들을 뭉뚱그려서 ‘이드(Id)’라고 불렀다.¹⁴⁾ ‘이드’ 속에는 여러 가지의 억압된 정서적, 충동적 에너지들이 들끓고 있으면서 마치 눌러있는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드’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에너지를 프로이트는 ‘리비도(Libido)’라고 부른다. ‘자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드에서 분출되는 소원충동들을 지속적으로 억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자아’는 이러한 에너지를 ‘이드’로부터 빌려 쓴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프로이트는 ‘리비도집중(Libido-obsession)’과 ‘리비도반대집중(Libido-gegenbesetz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프로이트, 2009a: 182). 리비도집중이란 원초적 소원충동이 원하는 대상을 향해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을 말하며, 리비도반대집중이란 소원충동을 막기 위해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본능충동의 억압을 위해 심력(心力)을 쓰는 것이 리비도반대집중인 셈이다.

‘이드’의 소원충동에 대한 억압이 성공적일수록 ‘자아’는 강화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자아’로부터 이미 분화되기 시작한 ‘초자아’도 강화되어 간다. ‘초자아’는 부모와 사회로 대변되는 사회적 규범, 도덕, 양심 등의 의식인데, ‘자아’ 보다 상급의 심급(審級)에 서서 ‘자아’를 검열하고 책망한다. 문제는 ‘자아’는 물론이고 ‘초자아’도 ‘이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데에 있다.¹⁵⁾ 왜냐하면 ‘자아’와 ‘초자아’는 리비도반대집중을 통해 유지되고 있고, 이를 위한 ‘리비도(에너지)’를 ‘이드’로부터 빌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드’는 ‘자아’와 ‘초자아’에 리비도를 빌려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관철시켜간다.

프로이트는 ‘이드’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기제(機制) 중의 하나로서 ‘전위(轉位: Verschiebung)’를 들고 있다(프로이트, 2009a: 149f.). 자아와 초자아에 의해 억압된 소원충동은 이들에 의한 이중(二重)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검열을 통과할 수 있는 대체표상(代替表象)을 찾는다(Ibid.: 184f.). 검열의 시선 앞에서 허용될 수 있는 가면(假面)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대체표상을 향해 리비도가 집중된다. 예컨대 아버지를 미워하던 사람이 ‘아버지를 미워하면 안 돼’라고 억압을 해 버리고 난 뒤에도 미운 감정이 자꾸 올라오니 결국 아버지와 모습이 비슷한 남동생에 대해 미움의 감정이 표출되는 경우에, 남동생은 아버지

14) 프로이트는 독일어사용지역인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으며, Id에 대한 독일어는 Es이다. Es는 영어의 비인칭대명사 it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 “비가 온다”는 독일어는 “Es regnet”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Es(= 무엇인지 모르는 미지의 무엇)가 비를 오게 한다”는 뜻이다.

15) 프로이트에 따르면 ‘초자아’의 발생 자체가 정서적, 충동적(즉, 리비도적) 역동(dynamic)의 과정을 통해 생겨난다. ‘초자아’는 남아아이의 경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아버지와 동일시가 일어나며, 그 결과 아버지로 대변되는 사회적, 윤리적 규범이나 문화적 가치, 종교적 권위 등의 의식이 <초자아>를 구성한다. 여아의 경우 남근선망에 따른 거세 콤플렉스를 먼저 겪게 되고, 이것이—남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해당되는—엘렉트라 콤플렉스로 발전한다. 정상적인 경우 여아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동일시를 하면서 초자아를 형성시킨다(이무석, 2008: 148ff.). 요컨대 초자아는 부모에 의한 외부적 억압이 내면화된 것이며, 그 결과 초자아는 부모들이 이전에 아이에게 그랬던 것과 똑같이 자아를 관찰하고, 억제하고, 위협하며, 징벌하게 된다(프로이트, 2004: 86).

에 대한 대체표상이 되는 셈이다. 미움의 대상이 본래 아버지였던 것이 남동생에게로 전위(轉位)된(= 위치를 옮겨 간) 것이다. 이것은 억압을 통해서 심리적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자아와 초자아는 자신이 완벽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믿고 있지만 사실은 불합리한 왜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아와 초자아가 불합리한 리비도에 붙잡혀 있는 모습 중의 하나로 프로이트는 나르시즘(Narcissism)을 든다. 인간은 생애 첫 순간부터 나르시시즘을 지니고 있다. 유아(乳兒)는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가 부여되고,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느끼면서 행복한 자기만족의 상태에 젖어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훈계나 스스로의 비판적 판단에 의한 각성을 통해 장애에 부딪쳐 더 이상 그 완벽함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자아이상 또는 이상적 자아라는 새로운 형태에서 다시 회복하고자 애를 쓰게 된다”(프로이트, 2009a: 74). 왜냐하면 자신이 어렸을 적에 누렸던 나르시시즘적 완벽함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¹⁶⁾ 이처럼 유아기 때 지니고 있던 완벽한 자기에 대한 대체물로 생겨난 ‘자아이상(自我理想: Ichideal)’은 이제 ‘초자아’ 속으로 들어가서 ‘자아’와 ‘이드’를 검열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 존재는 근본적으로 나르시시즘 성향, 즉 ‘자기에(自己愛)’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Ibid.: 46, 50), 자아이상이 확립되고 나면 리비도를 자아이상 쪽으로 끌어들여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기에 리비도, 즉 충동에너지의 ‘승화(昇華: Sublimierung)’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억압되었던 리비도가 탈출구를 찾고 있다가 자아이상에 기여하는 쪽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아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승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아이상이 승화를 요구하기는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아이상은 자체적인 강력한 에너지(리비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프로이트는 이 자아이상이야말로—(남자아이의 경우)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던—오이디푸스콤플렉스의 후계자라고 주장한다. 남아는 4-5세 이후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아버지와 동일시를 하게 되고, 여아는 엘렉트라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어머니와 동일시를 하게 된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역할은 교사나 다른 권위를 지닌 인물들에 의해 계승된다. 이들의 명령과 금제(禁制)는 자아이상에 강하게 남아서 양심의 형태로 도덕적 검열을 계속 수행하며, 양심의 요구와 자아의 실제적 행동 사이의 괴리는 죄의식으로 경험된다(프로이트, 2009a: 379).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초자아에는 불합리한(정서적, 충동적) 동기들이 은밀히 부합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동기들이 은밀히

16) 프로이트에 따르면 초자아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또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형성되지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성애적(性愛的)인 근원과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성애적인 뿌리를—승화된 형태로—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자아 뿐만이 아니라 초자아도 이드의 변형이라고 보는 프로이트의 입장이 다시 확인된다(프로이트, 2009a: 375ff.).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¹⁷⁾ 그런데 불합리한 동기들은 지속적으로 억압이 되고 있으므로 초자아 자체는 이러한 억압된 동기들을 알지 못하고 다만 자신을 추상적인 언어적, 논리적 관념들, 원칙들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초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적 관념은 본래—욕망하고, 두려워하고, 혐오하는—대상의 표상(表象) 및 이것이 유발하는 감정과 결부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억압에 의해 대상의 표상과 이와 결부된 감정들은 도외시되고 추상적인 언어 관념만 남아서 그 자체로 절대화되는 것은—이러한 상태를 사람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진실한 사태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사실은 불합리한 것이다(프로이트, 2009a: 213).¹⁸⁾

이러한 이유로 인해 프로이트는 초자아가 자아를 강하게 지배하는 상황에 대해 반대한다. 초자아의 힘이 너무 강하면 자아를 엄하게 통제하여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하며 그 결과 자아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또한 초자아가 또한 이드를 너무 심하게 억압해도 신경증 등 정신-신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자아가 초자아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이드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 정신의 건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2. 정신분석을 통한 마음의 치유 및 개발

프로이트는 내담자의 정신-신체증상¹⁹⁾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분석을 행함으로써, 정신-신체증상의 원인이 주로 환자의 유년기에 일어났던 본능충동의 억압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그 뿌리가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환자 자신이 자각하도록 함에 의하여 다양한 정신-신체증상들을 해소시켰다. 과거(특히 어린 시절)에 억압당했던 관념들이 현재시점에서 볼 때,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억압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억압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현재 문명의 근원을 그 발생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분석함으로써 문명의 비합리적인 뿌리를 밝혀낼 수 있으며, 이

17) 프로이트는 『토템와 타부』에서 도덕의 최초의 형성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적(性的) 대상에 대하여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의 성적 행동을 억압하려는 동기(動機)나 자기의 성적 대상을 지키려는 동기가 도덕 형성의 핵심적 동기중의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프로이트, 2009b: 213ff.). 이외에도 자신의 권위,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나, 자신이 정서적으로 강하게 선호하는 대상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려는 동기 등이 도덕적 가치 관념을 형성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어떤 청소년을 그의 부모나 교육자가 도덕적으로 책망하는 경우에도 완전히 순수한 도덕적인 이유에서만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아이는 책망하는 이의 복합감정을 막연하게나마 느끼게 되므로 도덕적 책망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18) 프로이트는 철학이나 종교가 이러한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프로이트, 2009a: 213).

19) 정신-신체 증상이란 노이로제, 히스테리, 불안, 강박증이나 이와 병행해서 나타나는 국소마비, 경련, 졸도, 구토, 딸국질 등을 말한다.

를 통하여 인류문명은 장구한 세월동안 대물림해 온—비합리적 망상에 기인한—오류와 착각을 극복함으로써 문명 자체도 치유될 수 있다고 프로이트는 주장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치료의 요체는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정신-신체적 병리현상의 원인이 된 불합리한 억압을 찾아내고 이를 내담자가 자각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²⁰⁾ 이를 통해서 억압되었던 무의식적 내용이 의식의 빛에 의해 밝혀지면서 의식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 결과 자아의 영토는 확장되고, 억압에 사용되었던 에너지도 자아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프로이트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신분석의 작업은 [...] 자아를 강화시키고 그 자아를 초자아로부터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며, 그의 지각범위를 확장하고 그 조직을 확대하여 이드의 새로운 부분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드가 있었던 곳에 자아가 생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조이더제(Zuiderzee)를 간척하는 것과 같은 문화적 작업이다(프로이트, 2004: 109).

이제까지 우리의 정신활동은 지속적인 억압의 과정을 통해서 ‘자아’의 좁은 범위 안으로 축소되었고 ‘이드’라는 광대한 영역은 사장(死藏)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억압들을 찾아내어 해소해 나간다면 어둠 속에 잠겨있던 무의식의 영역이 점차로 밝게 드러나면서 의식의 영토로 편입되어갈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는 점점 더 큰 영토를 소유하게 되고 이전 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프로이트는 기대하였다.

IV. 대행선사와 프로이트의 마음관과 마음교육관 비교 논의

1. 잠재의식과 무의식

대행선사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마음공부의 도리를 설명한 바 있는데, 이 때 잠재의식이란 현재의식의 저변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그래서 현재의식이 인지하지 못하는 의식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잠재의식(das Latentbewußte; the subconscious)이라는 용어보다 무의식(das Unbewußte; the unconscious)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²¹⁾ 그 이유는 잠재의식은 감추어져

20) 본 논문에서는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의 수행적 의미를 검토해보는 데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자유연상, 꿈 및 실수의 분석 등 정신분석치료의 구체적인 기법에 대한 검토는 생략한다.

21) 프로이트도 저술활동 초기에는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가 독립적인 사상가로 자리매김한 꿈의 해석 이후의 저술에서는 무의식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프로이트, 2010a: 451; 프

있지만 드러낼 수 있는 의식이라는 의미를 지닌 반면에, 무의식이란 (현재) 의식에 의해 억압되어 있어서, 이 억압이 해제되지 않는 한 절대로 드러날 수 없는 의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견해는 주로 억압이라는 기제에 의해 무의식의 생성과정을 설명하는 그의 입장을 반영한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억압된 의식내용 이외에도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요소들과 성장과정의 경험들로부터 수집된 사소한 것으로 치부된 내용들도 무의식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프로이트, 2009a: 202).

그런데 대행선사는 “여러분의 그 깊은 잠재의식 속에, 참 나가 공(空) 안에 들었다”(대행선사, 1999a: 31)고 하였는데, ‘참 나’는 위에서 고찰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마음을 말하는 것이며, 한마음은 개체적 원리를 넘어선 보편적 원리이므로 대행선사가 말하는 잠재의식은 프로이트적 의미의 잠재의식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왜냐하면 프로이트의 의식과 무의식, 또는 이드-자아-초자아는 개체적 성격(또는 인격)의 원리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행선사는 잠재의식의 내용도 프로이트가 말하는 억압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무수한 과거 생으로부터 쌓아온 업습(業習)이라고 한다.²²⁾ 프로이트에 따르면 정신활동의 모든 과정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유실되지 않는다. 이것이 대행선사가 말하는 업습(業習)에 배대(配對)될 수는 있겠으나, 프로이트는 윤회(輪回)와 전생(轉生)을 전제하지 않았으므로 그 의미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2. 마음관 및 인간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행선사에 따르면 잠재의식에는 무수한 전생을 거쳐 살아오면서 지은 업식(業識)들이 들어 있고, “그 업식들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나오듯이 차례 차례로” 나온다는 것이다(대행선사, 2001a: 601).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업식을 ‘자아’로 삼고 있지만 사실은 업식이 출력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나가 아닌 가아(假我)이다. 그런데 선사는 잠재의식에 또한 ‘참 나’, 즉 한마음(불성)도 들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업식과 한마음이 모두 잠재의식의 영역에 속하는 셈이다. 그런데 업식은 한마음에서 파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을 망각한 의식으로서 한마음을 덮어 가리고 있으므로, 한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에서 출력되는 업식을 지속적으로 한마음에 되돌려 놓아 소멸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누가 하는가? 업식으로서의 ‘가아(假我)’가 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현재의식으로서의 ‘가아’만이 임의적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아가 심부름꾼이 되어 잠재의식에서 유출

로이트, 2007b: 789).

22) “사람의 잠재의식이나 혼을 가지고서 도라고 하는, 참 나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나 그 잠재의식 안에 묻혀 있는 그것은 내가 억겁을 통해서 거쳐 오면서 업히고 설켜서 묻혀 있는 습입니다. 그 습을 몽땅 녹이고 행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는 자기가 행복을 받고, 자기가 행복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대행선사, 1999a: 239).

되어 나오는 모든 업식을 한마음에 맡겨나가면 업식이 지속적으로 소멸되어가므로 업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아도 소멸되어 간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현재의식으로서의 가아가 한마음 안에서 지양되면서 한마음으로 합일된다. 한마음으로 합일되면 더 이상 현재의식과 잠재이식의 이분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가 밝게 하나로 통하게 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문명화의 과정을 통하여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이드’의 분리가 일어났다. 자아는 이드의 일부분이 외부세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면서 자기를 보존하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달한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자아는 감각-신경-근육이 연동된 신체시스템을 작동시킨다. 이러한 신체시스템은 본래 ‘이드’의 것인데, ‘이드’ 자체는 현실세계를 지각하지 못하므로 ‘자아’로 하여금 현실세계를 지각하고 판단하게 하며, 이 판단에 의지하여 ‘이드’는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드’는 결코 ‘자아’를 주인으로 섬기며 복종하는 하인이 아니며, 단지 자신의 원망(願望)이 현실세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충족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언 구하기 위해 ‘자아’를 필요로 할 뿐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보면 ‘자아’는 ‘이드’가 현실세계에 대처하기 위해 세워놓은 의뢰인, 심부름꾼과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아’가 ‘이드’를 망각하고 자신을 독립자존의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서구의 이성주의적 인간관은 이러한 독립적인 자아를 인간의 주체로 삼았다. 이러한 인간관은 실제적 인간 존재의 반쪽, 아니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 구성된 편협한 인간관이므로 이러한 인간관에 근거하여 교육, 정치, 경제 등 사회적 제도와 과정을 설계한다면 인간 삶과 사회가 심각하게 왜곡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드’의 방대한 영역을 인간존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드를 자아의 영역으로 편입해 들여야 한다. 여기에서 상기할 것은 프로이트가 자아를 고정불변의 실체(實體)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아는 프로이트에 있어서 변동성이 있는 임시적 조직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서구의 이성주의적 인간관은 이러한 자아를 절대화하면서 확고하게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이드에 대한 억압과 배제가 일어나며, 인간의 삶은 자아(自我)라는 좁은 틀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편협하게 고착(固着)된 자아의 감옥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드에 대한 억압을 제거하여 인간의 삶에 광활한 자유의 영토와 넘치는 에너지를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문명적 가치에 따라 이드를 지속적으로 순화시켜야 한다는 조언을 잊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의미로 “이드가 있었던 곳에 자아가 생성되어야 한다”(프로이트, 2004: 109)는 프로이트의 말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프로이트적 인간관은 이드에 뿌리를 박고 있는 자아가 이드를 개명(開明)하고 이끌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대행선사에 따르면 업식의 ‘자아’가

자신의 존재 바탕이며, 동시에 일체 현상세계의 근본인 ‘한마음’에 자신을 맡기고 한마음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이드는 본능적 욕망과 에너지의 집합체이므로 자아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 반면에 대행선사에 있어서 한마음주인공은 일체제불과 일체중생, 우주전체와 둘 아니게 돌아가는, 무한 지혜와 무한 에너지의 보고(寶庫)이다.²³⁾ 그러므로 자아는 한마음주인공의 심부름꾼이 되어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인공의 뜻에 의해 살아가야 한다. 온전히 맡겨가다 보면 문득 자아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면서 한마음주인공으로 합일(合一)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대행선사는 이를 부자상봉(父子相逢)이라고 표현한다. 물론 부자상봉을 한다고 해도 과거에 입력된 업식들 전체가 일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아도 일시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마음주인공과 합일되는 체험을 한 이후에 자아는 자신이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업식의 소산인 가아(假我)임을 스스로 알게 되며, 이에 따라 자아는 단지 한마음주인공의 시자(侍子)가 되어 남은 업식들을 주인공에 돌려놓는 작업을 해 나가게 된다. 이는 자신을 지양(止揚)하고 소멸시켜가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한마음 자체로 돌아가게 되니 이것이 대열반(大涅槃)의 길이다.²⁴⁾

이상과 같이 대행선사와 프로이트의 마음관 및 인간관에 구조적 유사성이 없지 않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프로이트의 마음관은 인간을 육체와 육체에 깃든 의식으로 구성된 존재로 보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드-자아-초자아 또는 의식-전의식-무의식으로 표현되는 마음의 구조도 개체로의 개인의 마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비해서 대행선사는 개체적인 마음과 한 마음을 구별하고 있다.²⁵⁾ 한마음은 개별적인 마음을 넘어선, 개인의 내면과 외부세계가 모두 다 연결되어 하나로 돌아가는 우주적인 마음이며, 이러한 한마음이 나와 타인들, 나아가 만물만생의 존재 바탕이다. 프로이트의 마음관에는 이러한 한마음에 대한 전망이 빠져있는 점이 대행선사의 마음관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23) “불성의 에너지는 이 우주를 덮고도 남습니다. 이거는 혼자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와 더불어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주의 에너지와도 직결이 돼 있습니다”(대행선사, 1999d: 228).

24) 대행선사가 마음공부의 과정을 세단계로 제시했다는 것은 위의 ‘Ⅱ. 2. 마음교육의 방법론: 주인공관법’에서 언급한 바 있다. 첫 단계는 먼저 참 나(주인공)를 발견하는 단계, 즉 부자상봉의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나와 남, 부처와 중생, 우주 삼라만상이 둘이 아님을 체득하는 단계이며, 세 번째 단계는 일체 생명과 둘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체득하는 단계다. 필자의 견해로는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야 ‘자아’가 완전히 지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세 번째 단계에서 온전히 한마음으로 합일되어 일체와 둘 아니게 나투는 경지에 도달한다고 대행선사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25) “‘한마음’과 그냥 ‘마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속의 모든 의식들이 한데 합쳐서 하나로 돌아가는 거를 한마음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내 내면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만 알면, 외부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부터 알아야 되죠”(대행선사, 2001a: 564).

3. 마음교육관

대행선사와 프로이트의 마음관과 인간관의 차이는 마음교육관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대행선사에 따르면 잠재의식은 진정한 내가 아니므로, 이러한 잠재의식 안에 겹겹이 얹혀있는 업습(業習)을 녹여서 업습에 가려져 있는 본래의 청정한 참 나를 활짝 드러내야 한다고 설파한다.

사람의 잠재의식이나 혼을 가지고서 도(道)라고 하는, ‘참 나’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나 그 잠재의식 안에 묻혀 있는 그것은 내가 억겁(億劫)을 통해서 거쳐 오면서 얹히고 설켜서 묻쳐 있는 습(習)입니다(대행선사, 1999a: 239).

그렇다면 어떻게 업습(業習)을 녹이는가? 대행선사는 ‘참 나’인 ‘한마음주인공’을 믿고 일체를 그 자리에 놓으면 녹일 수 있다고 가르친다. 업습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으면 마치 용광로에 들어간 쇠불이가 녹는 것과 마찬가지로 녹아서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을 통하여 업습이 녹으면 녹을수록 잠재의식이 밝아지며 종국에는 안팎이 하나로 통하게 되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것이 그대로 참 나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없던 것이 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참 나’를 가리고 있던 업식이 사라지니 전체가 하나로 합해져서 본래 모두가 자기 아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아가서, 내가 나와 하나로 통하면 남과도 하나로 통하게 되고, 우주와도 하나로 통하게 된다고 대행선사는 설파한다.²⁶⁾

그렇다면 업습(業習)의 녹임은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가? 대행선사는 기본적으로 안팎으로 막쳐오는 모든 경계가 한마음의 나뉠이니 다시 한마음의 자리, 즉 주인공에 돌려놓고 지켜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한마음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한마음의 실존(實在)을 알지 못하므로 믿기도 어렵고 놓기도 어렵다. 대행선사는 생각을 내기 이전, 즉 무분별(無分別)의 마음자리가 불성, 즉 한마음의 자리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나(자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별하는 마음’으로는 분별을 초월한 무분별의 마음(생각 일으키기 이전)을 알 수가 없다는 데에 딜레마가 놓여있다. 여기에 믿음의 불가피성이 드러난다. 근본 불성을 깨달은 석가모니와 그의 깨달음을 이은 수많은 선지식(善知識)들의 근본불성, 즉 한마음의 실재에 대한 증언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한마음의 실재를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주인공에 놓기 위해서는 믿음에 상응하는 주인공의 관념(concept)을 세워야 한다.²⁷⁾ 그렇지 않으면 업식(業識)의 자아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식의 자아’, 즉

26) “내 내면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만 알면, 외부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부터 알아야 되죠”(대행선사, 2001a: 564).

27) “지금 내가 무명을 벗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몸 안에 들은 모든 의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제 상대성의 끈에, 인과의 끈에 의해서 자꾸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첫째는

분별하는 의식도 본래 무분별의 마음자리에서 나온 것이며, 실제로 그 자리를 여윈 적이 없건만 자신의 뿌리인 무분별의 마음자리를 망각하고 자신을 참 나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업식의 자아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수한 전생(前生)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생사를 반복하면서 지어온 업(= 삶의 결과)이 잠재의식에 입력되어 있다가 인연(因緣) 따라 출력이 되며, 그 출력되는 바를 계교(計較)하여 ‘나’를 삼는 것이 업식의 자아인데, 이러한 업식의 자아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현상이 입력되고 출력되는 근본바탕인 불성, 즉 한 마음의 자리는 까맣게 모르는 ‘거짓 나’이다. 이러한 업식의 나를 ‘참 나’로 삼는 한 우리는 업습(業習)의 지배를 받으면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근본이 한마음주인공이라는 믿음을 세우고 업식에서 일어나는 안팎의 모든 경계를 거기에 놓아가야 하는 것이다.²⁸⁾ 이렇게 되면 ‘업식의 나’에게 공급되던 자양분(안팎의 경계)이 차단되어 업식의 나는 서서히 약화되어 간다. 업식과 경계 사이를 순환하던 업(業)의 고리가 끊어져가는 것이다. 중국에는 분별 업식이 문득 쉬어져서 분별없는 마음자리가 드러나는 시점이 온다. 주인공을 체험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되면, 주인공은 이전에는 관념적인 믿음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프로이트가 무의식 또는 이드(Id)가 인간 존재의 본래적 바탕이라고 본 것은 분명하다. 무의식의 영역에 존재하는 이드는 막대한 원초적 생명의 에너지(리비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아와 초자아는 문명생활의 결과로 이드의 일부가 깨어난 것이지만 여전히 이드에 뿌리를 박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인간본성에 대한 프로이트의 견해임은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프로이트 자신도 합리적인 문명인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신분석을 통하여 자아를 잘 발달시키고(이를 위해 자아를 초자아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이 자아가 이드를 잘 설득하고 교화시켜 자신의 영역으로 편입해 감을 통하여 건강하고 합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밀려나간 이드를 다시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것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억압을 제거해 나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억압 자체도 무의식 속에 잠겨있다.²⁹⁾ 그러므로 억압을 제거하기 위해 꿈, 실수, 신경증, 히스테리 등 정신-신체 증상을 분석하여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무의식의 흔적을 찾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무의식의 흔적 자체를 의식화시킬 수 있어야 억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프로이트, 2009a: 175). 억압의 원인이 되는 무의식의 흔적이란 억압된 관념뿐만 아니

주인공이라는 중심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대행선사, 2001a: 159).

28) “사는 자체가 다 바로 그놈이 하는 거라고 믿고 놓아야 합니다. 만약 그놈임을 믿지 않고 그놈한테 다 맡겨놓질 않는다면은 그놈은 절대 나오질 않아. [...] 왜? 막아져 있으니까. 제 잘났다고 턱 하니 자기가 위로 올라왔었으니, 참자기는 나오지 못하는 거죠”(대행선사, 1999a: 305).

29) 최초의 순간에는 의식적으로 억압을 한다. 그런데 이를 의식 밖으로 밀어내 버림으로써 나중에는 자신이 무엇을 억압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가 된다.

라 이를 억압하는 관념, 그리고 이 관념들에 대해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는 리비도(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억압의 구조가 의식에 드러나면서 그 불합리성과 불필요성이 자각이 되면 억압이 해소된다. 자신이 지금까지 공연히 허구적인 관념에 얽매어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해당관념의 구속력이 약화되고 이 관념에 집중되어 있던 리비도가 풀려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신-신체적 증상이 있는 경우 이 증상이 감소 내지는 해소되며, 무의식적 억압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심량(心量)이 커지며 심력(心力)이 증대된다.³⁰⁾ 이러한 과정을 계속 수행해 나가면서 점차 본래의 나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원초적 자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원초적 자아가 문명의 억압에 의해 의식과 무의식(또는 자아와 이드)으로 분열되었다가 정신분석의 과정을 통해 무의식이 개명(開明)되고 정화(淨化)되어 가면서 의식과 무의식이 다시 합쳐져 가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의 완전한 통합을 꿈꾸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원초적 소원충동들을 아우르고 있는 이드가 원초적 자아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드를 완전히 지양(止揚)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합리성에 기초하는 문명생활을 위해서는 이드의 소원충동에 대한 억제를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문명은 생산과 질서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이드는 일정부분 억제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요한 전략이 ‘승화’와 ‘카타르시스’이다. 승화는 이드의 소원충동을 문명사회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변용시키는 것이며, 카타르시스는 이드가 지나치게 억압되어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이드의 에너지인 리비도를 배출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대행선사의 마음교육관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입장과 관련지어 간단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통 문제가 되는 대상의 관념(또는 이미지)과 이로 인해 유발된 감정이 자리를 잡게 된다.³¹⁾ 대행선사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 이에 대한 생각과 감정 모두를 주인공에 놓고 “너만이 잘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 또는 “너만이 ○○하게 할 수 있다”고 입력하고 지켜보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한마음선원 신도들이 호소하는 가장 흔한 문제는 아마도 ‘잘 놓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대행선사는 한마음주인공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였으며, 믿음으로 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믿음이 고양되었을 때에 비교적 수월하게 놓아진다는 것을 많은 수행자들이 경험하고 있다. 잘 안 놓아지는 경우에도 자꾸 놓

30) 이러한 프로이트의 입장은 『원각경(圓覺經)』의 다음 구절과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다. “知幻即離° 不作方便° 離幻即覺° 亦無漸次”(환인 줄 알면 바로 여의게 되니 방편을 짓지 않으며, 환을 여의면 그대로 깨달음이니 또한 점차가 없다.) (대정신수대장경 17권: 914).

31) 예컨대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되는 당사자의 모습 또는 관념과 그에 대해 유발된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지배하게 된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관련된 사태들에 대한 관념과 이 관념으로 유발되는 근심, 불안, 자책감 등의 복합감정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다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탁 놓아져서 녹아버리는, 그래서 마음이 그로부터 풀려나는 체험을 하게 되며, ‘아, 놓아지는 자리, 녹는 자리가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놓음은 탄력이 붙게 된다. 그런데 수행단체 안에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신심이 고양될 때건 아닐 때건 ‘놓아야만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놓아야 한다’가 실제로는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생각으로는 다 놓았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문제의 대상을 억압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상에 대해 일어난 감정은 잘 처리가 안 되고, 그 결과 본인도 이유를 잘 모르는 감정적 혼란이나 강박관념(強迫觀念)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마저 실제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측면을 감안할 때, 믿음이나 놓음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여기에서 프로이트가 제기한 ‘초자아’의 문제가 의미 있게 다가온다. 수행자에게도 당연히 자아이상(超自我)이 있으며, 이러한 자아이상 속에는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귀의심뿐만 아니라 스승에 대한 인간적, 정서적인 애착, 그리고 개인적인 발원이나 소명감, 도반(道伴)들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초자아가 지속적으로 수행의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자아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자아를 강하게 책망하고 비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책망과 비난이 (특히 고참 수행자의 경우에) 타인들의 시선에 대한 의식과 연결되어 심각한 스트레스나 자책감, 좌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이 지속될 경우 수행의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는 위에서 ‘초자아’에 불합리한 동기들이 숨어 있으며 따라서 초자아의 판단이 절대적 타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프로이트의 견해를 살펴본 바 있다. 우리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초자아에 은밀히 스며들어 있는 ‘이드’적 동기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³²⁾ ‘양면(兩面)을 놓아야 한다’는 대행선사의 가르침이 새롭게 다가온다(대행선사, 2001b: 1104).

우리 마음에서 놓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은 어떤 대상(경계)과 이에 대한 감정(욕망, 공포, 혐오 등)이 강하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자기의식의 한 부분처럼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을 참으로 놓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허구임을 깨닫거나, 감정 자체가 없어지거나 해야 할 것이다. 대상이 허구인 줄 알면(= 공한 줄 알면) 감정은 대상을 잃게 되어 저절로 소멸될 것이며, 감정이 없어진다면 대상이 또한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믿고 놓고 지켜보는 주인공관법을 진실하게 수행해 가다보면 점점 더 간절히 놓게 되고, 더욱 깊이, 세밀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상의 허구

32) 예컨대 수행을 잘 해야 한다는 마음의 이면에는 다른 수행자들보다 앞서겠다는 이기심,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겠다는 지배욕, 타인의 존경을 받고 싶다는 명예욕, 다른 이들의 인정과 선망을 받고 싶다는 나르시시즘 등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성을 점점 더 많이 감지하게 되고, 감정 또한 점차 찾아들게 되어 중국에는 경계가 되어 온 대상의 관념이 마음에서 탁 놓아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V. 나가는 말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의 본래 의도는 종교적 담론으로서의 대행선사의 가르침과 학술적 담론으로서의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을 비교분석하면서 무의식담론에 기초한 마음교육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명칭과 표현의 유사성이 실질적인 내용의 유사성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 특히 대행선사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프로이트가 의식과 무의식(또는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실제 의미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프로이트는 의식-전의식-무의식, 또는 이드-자아-초자아를 개인적 성격구조(또는 인격구조)를 나타내는 도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대행선사에게 있어서 현재의식은 주로 개인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잠재의식은 개인적 측면과 초개인적 측면을 함께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겠다. 또한 프로이트는 무의식에는 원초적 소원충동으로 가득 차있다고 본 반면, 대행선사는 잠재의식의 표면을—원초적 소원충동을 포함하는—업식(業識)이 덮고 있지만 그 심층에는 업식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한마음이 존재한다고 보는 점도 크게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선사와 프로이트를 비교 연구하는 것은 무의식담론에 근거한 마음교육론의 개발을 위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종교담론과 학술담론의 소통을 통하여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며, 그 이유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되는 심층심리학은 고대 이래로 현재의식을 인간 정신의 핵심으로 여겨온 서구인들에게 현재의식의 저변에 알려지지 않은 광대한 무의식(또는 잠재의식)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서구인들로 하여금 인간의 심층적인 존재 바탕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서구인들의 관심이 근원적인 존재바탕인 불성, 즉 한마음의 회복을 위한 대행선사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접근의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대행선사의 한마음의 사상은 서구적 무의식이론의 연구지평을 넓히는 데에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서구의 인식론과 도덕철학이 주체적 자아의 지속적 자기동일성을 근거로 발달해 온 반면, 프로이트는 자아(Ego)가 단지 이드(Id)를 대변하는 임시적 조직으로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었다. 이것이 ‘고정된 나’가 없다는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행선사의—종교적 체험에 근거한—

자아가 지양된 한마음의 가르침은 서구적 자아이론에 새로운 시야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인간의 근원적 의식층을 원초적 충동으로 가득 차 있는 무의식, 또는 이드로 본 프로이트의 견해에 대한 대안적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들어있는 불합리한 억압을 제거함으로써 억압되었던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의 영토로 편입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업식의 자아를 녹여서 본래의 존재바탕인 한마음을 회복하는 길을 보여준 대행선사의 가르침과는 크게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지평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유사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와같이 담론들 사이의 차이와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이 담론들 사이의 대화와 소통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대행선사와 프로이트의 마음관과 마음교육관 사이의 접점을 탐색하기 위한, 서투르고 미약한 시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보다 폭넓고 본격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종교담론과 학술담론 사이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양쪽 모두의 발전에 좋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가온여울(2005). 『한마음 선원과 대행스님의 주인공 개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강선보외(2008). 『인성교육』. 경기: 양서원.
- 『대정신수대장경』 제17권 경집부 4.
- 대행선사(1999a).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1』. 경기: (재)한마음선원.
- 대행선사(1999b).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2』. 경기: (재)한마음선원.
- 대행선사(1999c).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3』. 경기: (재)한마음선원.
- 대행선사(1999d).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4』. 경기: (재)한마음선원.
- 대행선사(2001a).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1』. 경기: (재)한마음선원.
- 대행선사(2001b).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2』. 경기: (재)한마음선원.
- 맹정현(2015). 『프로이트 패러다임』. 서울: 위고.
- 이무석(2008).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서울: 도서출판 이유.
- 진교훈외 20인 지음. (2007). 『인격』. 서울대학교출판부.
- 프로이트/김미리혜 옮김. (2010a). 『히스테리 연구』. 경기: 열린책들.
- 프로이트/임홍빈 홍혜경 옮김. (2007a). 『정신분석 강의』. 경기: 열린책들.
- 프로이트/임홍빈 홍혜경 옮김. (2004).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경기: 열린책들.
- 프로이트/윤희기 박찬부 옮김. (2009a).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경기: 열린책들.
- 프로이트/이윤기 옮김. (2009b). 『종교의 기원』. 경기: 열린책들.
- 프로이트/박성수 한승완 옮김(2010c). 『정신분석학 개요』. 경기: 열린책들.
- Freud, Sigmund(2010d), *Die Traumdeutung*. 2. Aufl. Frankfurt am Main. 프로이트/김인순 옮김(2007b). 『꿈의 해석』. 경기: 열린책들.
- Freud, Sigmund(2010e), *Das Ich und das Es. Metapsychologische Schriften*. 2. Aufl. Frankfurt am Main.
- Freud, Sigmund(2010f), *Das Unbehagen in der Kultur. und andere kulturtheoretische Schriften*. 2. Aufl. Frankfurt am Main. 프로이트/김석희 옮김(2010b). 『문명 속의 불만』. 경기: 열린책들.

원고접수일 : 2017년 1월 5일 심사일: 2017년 2월 7일 게재확정일: 2017년 2월 10일

연구자소개: 김영래

① 전공: 교육철학 / 소속: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② 관심영역: 독일 관념론 교육철학, 인성교육, 종교교육

③ 주요논저: 칸트의 교육이론(학지사, 2003). 헤르바르트의 일반교육학(학지사, 2006)

④ E-mail: kimy003@naver.com

Abstract

Discourse on the Unconsciousness and Mind Education

Kim, Young Rae

Korea University Institute of Educational Research

This research paper is aimed to explore and discuss the compatibility of academic and religious discourses about the zen meditation of ‘Ju-in-gong’, which is presented by Daehaeng Sunim, the great korean buddhist master who established Hanmaum Seon(Zen) Center. For this purpose, Ju-in-gong zen method will be approached and analyzed by Freud’s psychoanalytic theories. Daehaeng Sunim describes the process of going back to the ‘true self’ by the relations between consciousness and subconsciousness. She asserts that spiritual enlightenment is an experience of unifying consciousness and subconsciousness. Similarly, Sigmund Freud tries to show the fundamental nature of human mind by means of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or subconsciousness). He makes it clear that the ultimate goal of psychoanalysis is to integrate the unconsciousness (or id) into the consciousness(or ego). These two discourses have a lot of similarity with each other in using terminology but we still can find many different concepts between them as academic and religious discourses. Although the discourses have seemingly different contents, they show a meaningful similarity in getting an insight into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human mind. We also can discover they both deal with ‘inner healing’ or ‘inner self recovery’. For the above mentioned reas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Freud’s psychoanalytic theories can be a very useful and supportive tool in approaching the teachings of Daehaeng Sunim from an academic point of view.

Key words: Daehaeng Seon Master, Sigmund Freud, Ju-in-gong meditation, Psychoanalysis, Consciousness, Subconsciousness, Unconsciousness